

사방이 온통 황토 민둥산

■ 서울대 박순웅 교수

中 황사발원지 탐사

서울대 박순웅(朴淳雄·지구환경과학) 교수는 최근 2주 동안 기상연구소 전영신(全映信)박사 등과 함께 중국의 황사 발원지를 두루 답사했다. 답사기를 요약, 소개한다.

북서지방 간수(甘肅)성 란저우(蘭州) 북동쪽. 황토로만 이뤄진 민둥산이다. 바람 불 때마다 자욱한 흙먼지가 공중에 날아 다녔다. 드넓은 불모의 황토고원마다 수



중국 북서지방의 황사 발원지역을 찾은 박순웅(오른쪽) 교수. 주변 전체가 거대한 불모의 황토지대다.

양떼가 그나마 남은 풀밭 황폐화 도시선 매연·분진 섞여 시야 흐려

많은 양떼가 간간이 돌아난 풀을 찾아 돌아 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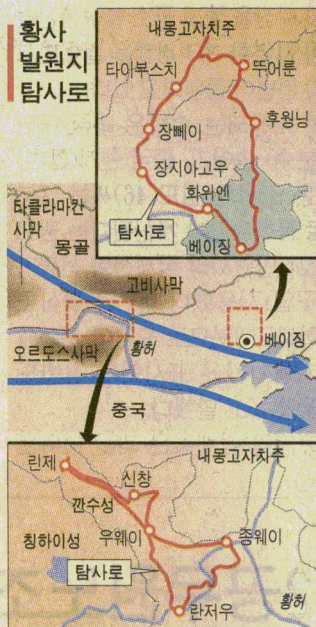
남쪽 황하 강변에서 60여m 떨어진 곳에 나무 울타리들이 이어져 있다. 인근의 광활한 고비사막에서 날아오는 엄청난 양의 황갈색 모래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 일대는 강수량이 적어 수로는 바짝 말랐고, 땅의 표면도 건조해 늘 뿌연 먼지가 허공을 떠다녔다. 간혹 나타나는 초원도 양떼와 경작지 개발로 인해 모래토양이 곳곳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작은 자갈이 섞인 마른 흙은 바람이 불면 언제나 먼지가 일었다.

우웨이(武威)를 거쳐 란저우로 돌아오는 길도 마찬가지로였다. 도로 양편으로 나무 한그루 없는 황토색과 회색의 산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베이징 북부지방 베이징(北京)에서 북서쪽 장지아고우(張家口)까

지는 150km. 황사는 대부분 이 곳을 지난다. 만리장성이 뻗은 산악지역을 넘으면 곧 황무지가 나타난다. 온 산야가 먼지로 가득 덮인 모양새다. 바람만 불면 언제든지 흙먼지가 날렸다. 장지아고우에 가까워지면서 굴곡에서 연기를 마구 뿜어내는 공장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연기는 공기 중의 분진과 결합되어 시야를 더욱 흐리게 만들었다.

장지아고우 북쪽 2km 정도 되는 곳에서부터 평균 해발고도 1,400m의 몽골고원이 시작된다. 이곳 역시 무차별적인 개간이 이뤄지면서 초지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내몽골 너머까지 척박한 대고원 만이 끝없이 펼쳐진다. 북으로 더 가면 흉산다케 사막. 수시로 휘몰아치는 모래보라가 토사를 실어내면서 사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막 가장자리 소도시 푸어룬(多倫)은 작은 희망이다. 중국과학원 생태계복원연구소는 이 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 비행기로 풀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으며 녹색 생태계를 회복시키려 애쓰고 있다.

/정리=김동국기자

dkkim@hk.co.kr